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23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복지정책팀장 남경선 ☎440-2911 • 담당자 임중선 ☎440-2915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에 속도…2025년 준공 목표

- 현재 회관 1996년 준공, 노후화, 공간 협소 등 신축 목소리 이어져 -
- 복지편의와 시민편의 문화공간 함께 갖춘 융복합형 인프라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현재 회관은 지상 7층, 연면적 9,497㎡로 29개 사회복지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1996년에 지어져 시설 노후화, 사무공간·주차장 협소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오는 6월까지 이전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을 통해 이전할 최종부지와 시설규모, 기존회관의 활용방안 등이 도출되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전행정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축 회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교육시설 등을 마련해 사회복지 단체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복지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허브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축 회관에는 사회복지 공간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어르신 쉼터, 시민협력플랫폼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문화공간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복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융복합형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인천사회복지회관 노후화로 인한 이전 필요성이 오랜 시간 제기돼 왔다” 며, “시민들과 사회복지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꼼꼼히 살피며 이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11시 이후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1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 추진배경

- 노후화된 現 사회복지회관의 시설 접근성 향상
- 복지환경을 고려한 복합·융합형 시설 도입으로 장기수요 대비
- 공공역할과 주민욕구를 반영, 공공과 민간이 상호 만족하는 회관 건립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2년 ~ '25년
- 위 치 : 인천광역시 관내
- 사업규모 : 10층 이하, 연면적 13,500m²
- 사업비 : ≍ 431억원(추정) * 부지매입비 제외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주요시설(안)
 - 주민편의 : 도서관, 참여동(어르신 쉼터, 마을도서관, 시민공동체 공간 등)
 - 복지편의 : 사회복지회관, 돌봄어린이집 등

□ 그동안 진행사항

- '22. 8월 :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2.10월 :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타당성 용역 계약심사 완료
- '22.12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

□ 향후 추진계획

- '22.12월 ~ '23. 6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23. 3월 ~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완료

○ '23. 7월 ~ 12월 : 실시설계용역

○ '24. 1월 ~ '25.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담당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남경선(2911) / 담당자 임중선(2915)
------	--